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류기욱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Help-Seeking Behavior Scale for Police Officers

Gi Wook Ryu
Department of Nursing,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하기 위함으로 자료수집 방법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 기술통계 및 확인적 요인 분석, 상관분석을 하였고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기본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하였고(Chi-square value=556.23, RMSEA=.11, CFI=.83, TLI=.79), 수정모델의 적합도는 기본모델보다 적합도 지수가 더 양호하여(Chi-square value = 368.75, RMSEA =.10, CFI=.89, TLI=.85), 수정모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범주 간 상관성을 분석했을 때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준거타당도 분석 시 회복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89으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도움추구 행위 도구는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으며, 경찰공무원 대상의 정신건강 증재 개발 및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375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S metropolitan area utilizing a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to August 202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and the criterion validity was checked. The concurrent validity was confirmed using the resilience scale and Cronbach's alpha value was analyzed to determine reliability. The result of the basic model showed a moderate fit (Chi-square value=556.23, RMSEA=.11, CFI=.83, TLI=.79). For the modified model, the fit index was improved (Chi-square value = 368.75, RMSEA =.10, CFI=.89, TLI=.85).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esilience. The reliability check showed a Cronbach value of .890, which is termed reliable. This scale can be used to measure the behavior of police officers seeking mental health assistance. It can also be us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Keywords : Psychometrics, Police Officers, Behavior, Mental Health, Mental Health Serv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경찰공무원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범죄, 재난 사고, 집

회 시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적 위협과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1,2]. 특히 최근에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양상의 고도화

본 논문은 2022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Gi Wook Ryu(Hansei Univ.)

email: gw14@hansei.ac.kr

Received August 22,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Revised September 25,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로 치안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어[3,4], 경찰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operational stress)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70% 이상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위계적 조직 특성에 따라 조직적 스트레스(organizational stress)가 더해져[2,5] 번아웃, 우울, 불안을 경험한다[1].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 경찰공무원 2,228명 중 14.3%가 트라우마 경험이 있었고[6], 국내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 중 41.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보고되었다[7].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마음동행센터를 각 지역에 개소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3]. 이러한 노력에도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3].

정신건강 관련 도움추구 행위(Help-seeking behavior)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문적이고 치료적 의사소통 및 지원을 통해 우울, 불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8]. 도움추구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심리적 문제를 인식 후, 도움을 결정하여 행동화가 필요하고[9], 개인의 주관적 인식,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지지, 사회문화적 요인과 같이 환경 및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10]. 경찰 조직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보수적이고, 냉소적이며, 남성 중심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정신건강 도움추구에 대한 스티그마가 높다[11]. 또한 교대근무 환경,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도움추구 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도움추구 행위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일반 인구 대상으로 도움추구 태도 측정 시 '전문가 도움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 ATSPPH-SF)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12-14], 도움추구 장애의 경우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인 '청소년 도움추구 장애도구(Barriers to Adolescents Seeking Help, BASH)'를 사용하였다[9,15]. 도움추구 태도, 도움추구 장애를 별도로 측정 시에 문항 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성인 대상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에 도움추구 태도 및 장애를 함께 확인하고 성인 대상의 도구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가 필요하다. 송영매의 연구(2009)에서는 도움추구 태도 및 장애 도구를 수정하여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이용태도를 측정하였다[16].

해당 연구는 정신과 환자 대상으로 연구되었고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본 도구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에 취약한 직업군, 정신건강에 대한 스티그마로 인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적용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움추구 행위 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도움추구 행위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한다.

둘째,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한다.

셋째,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수집 방법을 적용하여 정신건강과 관련한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17]. 연구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이었고, 연구대상자는 S 지역 소재의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크기는 효과 크기 0.20, 검정력을 .95로 하여 총 340명으로 하였다. 경찰공무원 대상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무응답률 45%를 반영하여 최종 표본크기는 총 500명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시 대상자 수를 문항 수의 10배 이상을 권고한다[18].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크기는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평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비확률적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업무량을 대표할 수 있는 S 지역의 112신고 건수에 따라 모집단을 25퍼센타일씩 나누어 '상', '중상', '중하', '하'인 부분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전체 신고

건수에 대한 부분 집단의 112신고 건수를 고려하여 할당 표를 작성 후 최종적으로 할당표에 따라 편의 표출을 하였다(Table 1).

Table 1. Allocation table for sampling

Category	112 reports, n(%)	Sampling, n(%)
High	601,141 (38.9)	195 (38.9)
High-middle	391,450 (25.4)	125 (25.4)
Middle-low	314,159 (20.3)	102 (20.3)
Low	237,135 (15.4)	78 (15.4)
Total	1,543,885 (100)	500 (100)

자료수집 시 본 연구자는 각 지구대에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지구대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제공하였고 서면으로 설문지를 배부 후 수거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도구는 도움추구 행위 도구이다. 본 도구는 송영매[16]가 도움추구 태도 도구와 도움추구 장애 도구를 수정한 도구로 도움추구 태도는 Fischer(1970)가 개발하고[19] 김주미와 유성경(2002)이 번안한 도구이며[13], 도움추구 장애는 Kuhl(1997)이 개발하고[20] 이상균 (2000)이 번안한 도구이다[2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 전에 도구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도움추구 행위 도구는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신뢰 5문항, 자기 노출 3문항, 내적 통제 2문항, 장애물 2문항으로 5개 범주,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총점 산출 방법은 1, 3, 8, 13, 15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환산 후 합산하며, 총점 범위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68점이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추구 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2).

2.3.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고난과 역경 상황에서 성장하는 특질을 의미하며[22,23], 도움추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행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여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로 스트레스, 트라우

Table 2. Help seeking behavior scale

No	Items
1	If I were to suffer from anxiety or worr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 would seek to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2	If I seek for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other people will think I'm crazy.
3	If I think I have a mental health problem, I will seek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4	Receiving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would invade my privacy.
5	My family will/may disagree with me seeking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6	It will be difficult to access mental health services because of the long distance to centers and lack of convenient transportation.
7	Discussing your problems with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at a mental health center may not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olve emotional conflicts.
8	If I am currently experiencing a severe emotional crisis, I am sure that the use of a mental health center will help stabilize me/will help stabilize the situation.
9	Seeking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will not solve my problem.
10	There may be an opportunity to use the services of a mental health center in the future.
11	I must solve my problems myself. Seeking help from a mental health facility would be a last resort.
12	I am ashamed that I have been helped that I sought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13	If I feel I need help from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I will go to a mental health center regardless of what other people think.
14	Because of the risk of exposing personal information, individuals will not seek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even if they have a mental health problem.
15	I know someone who has sought help from a mental health center.
16	Confidentiality will not be maintained "if I receive counseling from a mental health center.
17	Even if I wanted to use a mental health center, I would not be able to because of difficulties in knowing the location.

마를 경험하는 대상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도구는 Conner와 Davison(2003)에 의해 개발된 회복탄력성 도구로 [22], 해당 도구는 국내에서 Baek 등(2010)의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23]. 회복탄력성 도구는 강인성 8문항, 인내 8문항, 낙관성 5문항, 지지 3문항, 영성 2문항으로 총 5개 범주의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총점 산출 방법은 합산하는 방법으로 총점 범위는 최저 0에서 최고 100점이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변안 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3.2 연구윤리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Y-2020-0045)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대상자의 권리를 설명하였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하였다. 서면동의서에는 연구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철회 가능과 철회로 인한 불이익 없음, 개인정보보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 시 STATA 17.0,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차적으로 원 도구의 요인 범주와 문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본모델(Model 1)을 설정 후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수정모델(Model 2) 설정 시에는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 후 설정하였다. 수정모델은 공분산 관계가 있는 잠재 변수의 측정 오차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모델 적합도 분석 시 절대 적합지수(AFI, Absolute Fit Index), 증분 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를 확인하였다. 절대 적합지수 확인 시에는 카이제곱 검정값(Chi-square value), 평균 제곱근 오차(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의 판단기준치 범주는 .05에서 .10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으로는 .10이하의 경우 '보통', .08이하면 '양호'로 평가하고 SRMR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한다[24]. 증분 적합지수 확인 시에는 비교 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와 터커-루이스 적합지수(TLI, Tucker-Lewis index)를 확인하였다. CFI, TLI는 .70이상인 최소기준이며 .90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24]. 본 도구의 구성 개념에 대한 문항 타당성 검증은 도구의 하위 범주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확인하였다. 요인부하량 적합성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40이상으로 하였다 [24,25]. 도구의 하위 범주 간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 하위 범주들의 측정하는 개념의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준거타당도 분석 시에는 회복탄력성 도구를 이용하여 도움추구 행위 도구와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총 368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설문지 검토 결과 항목 무응답이 있는 11부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는 35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317명(88.8%)로 여성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37.62세(SD:±10.47)이었다. 기혼자가 188명(52.7%)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많았고, 계급의 경우 경장이 105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근무기간은 10.86년(SD:±10.37)이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 Mean±SD
Sex	Male	317 (88.8)
	Female	40 (11.2)
		37.62±10.47
Age (year)	20s	89 (24.9)
	30s	142 (39.8)
	40s	50 (14.0)
	≥ 50s	76 (21.3)
Marital status	Single	169 (47.3)
	Married	188 (52.7)
Rank	Police officer	97 (27.2)
	Senior police officer	105 (29.4)
	Assistant inspector	46 (12.9)
	Inspector	97 (27.2)
	Senior inspector	12 (3.4)
Working duration (year)		10.86±10.37
Resource of acquiring mental	Television or internet	242 (67.8)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Working place	73 (20.5)
	Hospital/Clinic	25 (7.0)
	Family or friend	12 (3.4)
	Other	5 (1.4)
Using of mental health center	Yes	25 (7.0)
	No	332 (93.0)
Help seeking behavior		49.13±6.88
Resilience		79.23±12.52

정신건강 관련 도움추구 행위와 관련된 특성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습득원은 'TV 또는 인터넷'이 242명(67.8%)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 보건기관 이용 경험 관련해서는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332명(93.0%)으로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이 176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도움추구 행위 점수는 49.13점(SD:±6.88)이었고, 회복탄력성은 79.23(SD:±12.52)이었다(Table 3).

3.2 구성타당도 분석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도움추구 행위 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원 도구의 5개 하위범주에 따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10번, 11번, 15번 이 각각 .07, .27, .01으로 요인부하량 기준인 .40이하[25,26]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Fig. 1). 이에 따라 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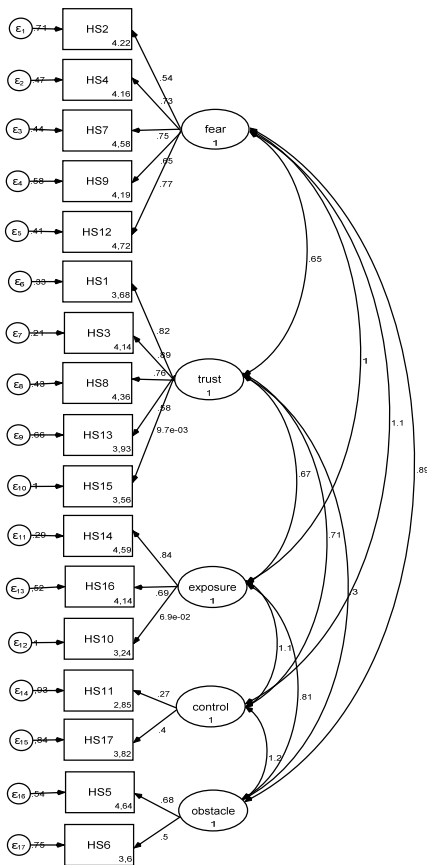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15번 문항 내용을 검토 후 도구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문항 11번은 '내적 통제' 범주에 속하는 문항으로 해당 문항을 삭제했을 때 잠재 변수를 설명하는 문항이 1개로 된다. 요인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표변수는 두 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27], 문항의 1개의 경우 요인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번 문항을 포함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요인의 부하량은 .40 이상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델과 수정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기본모델 분석 시에는 원 도구에서 설명하는 범주에 따라 분석하였다. 기본모델의 적합도 확인 결과 RMSEA값이 .11로 판단기준치 .10보다 높았고 CFI, TLI는 각각 .83, .79로 판단기준치 .70보다 높았다. CFI, TLI는 판단기준치에 적합하였으나 RMSEA가 판단 기준치를 벗어나 모델을 수정하였다. 오차항 간 상관관계와 수정지수(MI)를 확인했을 때 7번, 9번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46.60, 1번, 3번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33.40으로 높았다. 이에 7번, 9번 문항과 1번, 3번 문항의 오차항을 연결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RMSEA는 .10, CFI, TLI는 각각 .89, .85로 RMSEA의 경우 기본모델에 비해 적합도 판단기준치에 부합하였다. 또한 기본모델과 수정모델의 카이제곱 값(χ^2)을 비교했을 때 기본모델값의 경우 556.23에서 368.75로 감소하였다. 카이제곱이 낮다는 의미는 표본데이터와 모델에서 추정된 데이터값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정모델의 적합도가 더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정모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Table 4).

Table 4.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357)

Model	Absolute fit			Comparative fit		
	χ^2	p	df	RMSEA	CFI	TLI
Model 1	556.23	<.001	109	.11	.83	.79
Model 2 (modified model)	368.75	<.001	78	.10	.89	.85
Evaluation criteria	<.050	-	.05-.10	≥.70	≥.70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하위 범주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모든 범주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도움추구 행위 수준과 관련된 개념과 속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al relationship among subscale of help seeking behavior (n=357)

Factors	Fear	Trust	Self-exposure	Internal control	Barrier
Fear	1	.58*	.78*	.48*	.58*
Trust		1	.54*	.33*	.21*
Self-exposure			1	.42*	.50*
Internal control				1	.39*
Barrier					1

p<.001*

3.3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준거타당도 분석

본 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움추구 행위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전체 도구에 대한 상관성은 .26(p<.001)이었다. 하위범주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도움추구 행위 하위범주에서 내적 통제를 제외한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 및 신뢰, 자기노출, 장애물 범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among factors of help seeking behavior and resilience (n=357)

Factors	Help seeking behavior	Fear	Trust	Self-exposure	Internal control	Barriers
Resilience	.26 (.001)	.26 (.001)	.21 (.001)	.24 (.001)	.07 (.165)	.25 (.001)
Hardiness	.26 (.001)	.26 (.001)	.19 (.001)	.25 (.001)	.06 (.084)	.23 (.001)
Persistence	.23 (.001)	.17 (.001)	.20 (.001)	.20 (.001)	.09 (.084)	.23 (.001)
Optimism	.19 (.001)	.14 (.001)	.15 (.001)	.18 (.001)	.06 (.296)	.19 (.001)
Support	.22 (.001)	.17 (.001)	.20 (.001)	.17 (.001)	.05 (.313)	.23 (.001)
Spiritual in nature	.22 (.001)	.20 (.001)	.17 (.001)	.22 (.001)	.02 (.637)	.23 (.001)

3.4 신뢰도 분석

전체 문항과 하위범주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다. 측정 도구의 5개의 하위범주의 신뢰도는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은 .82,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신뢰 .84, 자기노출 .73, 내적 통제 .19, 장애물 .50이었다 (Table 7).

Table 7. Reliability: Cronbach's alpha values (n=357)

Factors	Item No	Cronbach's alpha	
		Sub-domain	Total
Fear	2,4,7,8,12	.82	
Trust	1,3,8,13	.84	
Self-exposure	14,16	.73	.89
Internal control	11,17	.19	
Barrier	5,6	.50	

4. 논의

본 연구는 도움추구 행위 도구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도구는 경찰공무원의 도움추구 행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타당도 분석 시 10번, 15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7과 .01로 낮아 제외하였다. 요인부하량이 낮다는 의미는 요인과 지표변수 사이의 관계가 낮음을 의미한다[25]. 10번 문항의 설문 내용은 '앞으로 정신보건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로 '자기노출'과 관계가 낮았다고 할 수 있으며, 15번 문항의 경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신보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다'로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신뢰' 범주와 관련성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설문은 설문 목적에 따른 문항의 내용 구성, 응답에 필요한 인지적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28]. 이에 따라 10번, 15번 문항은 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질문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설문 결과에 영향을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에 근거하여 7번, 9번 문항과 1번, 3번 문항의 오차항을 연결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수정모델의 적합도($\chi^2=368.75$, RMSEA=.10, CFI=.89, TLI=.85)는 기본모델의 적합도($\chi^2=556.23$, RMSEA=.11, CFI=.83, TLI=.79)보다 양호하였다. 이는 연결한 2개의 문항은 관찰변수가 설명할 수 없는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거나 문항의 문구의 유사성으로 인해 측정 오차간 상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7번 문항('자신의 문제를 정신보건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써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과 9번 문항('정신보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1번 문항('만약 내가 불안이나 걱정으로 장기간 고통받게 된

다면 정신보건기관의 도움을 구하고 싶을 것이다')과 3번 문항('만약 나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정신보건기관의 도움을 구하겠다')의 유사성이 모델 적합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와 전문가 도움추구 태도를 적용한 선행연구의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적합도가 선행연구(RMSEA=.03, CFI=.98, TLI=.97)[12]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 도움추구 행위 도구는 총 17개, 5개 범주로 구성되었고, 선행연구에서 전문가 도움추구 태도 도구는 '개방성', '도움에 대한 가치', '대처에 외부 도움의 선호' 3개 범주,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움추구 행위 모델은 전문가 도움추구 태도 모델보다 복잡하고 문항이 많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적합도가 낮아지므로[27] 선행연구보다 본 모델의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문항의 준거타당도 확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측정 시 주로 사용되는 Conner와 Davison(2003)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움추구 행위와 회복탄력성 도구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고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극복하고 성장하는 능력이고[29], 도움추구 행위의 선행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1,30].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움추구 행위 도구의 준거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움추구 행위와 회복탄력성 하위범주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도움추구 행위 도구에서 내적 통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범주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도움추구 행위 도구 간 하위범주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도움추구 행위의 신뢰도를 확인했을 때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므로[31], 본 도구는 신뢰도가 높았다. 청소년 도움추구 장애도구(BASH)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81이었고[15], 일반 성인 대상으로 전문가 도움추구 태도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78이었다[32].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움추구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 요인이자 보호 요인이다. 도움추구 행위는 문화, 집단, 국가의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10].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스티그마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이 어렵다[8]. 따라서 도움추구 행위 도구를 활용한 측정은 우울, 불안과 같

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확인하고 전문적 지원을 연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비확률적 할당 표집을 통해 샘플링을 하였다는 점에서 편의표집을 통해 수행된 연구보다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 취약하고 스티그마가 높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 정신건강 정책 개발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한 간호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내적 통제에 대한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신뢰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에서의 범주를 유지하기 위해 '내적 통제' 범주의 요인부하량과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합도와 신뢰도가 낮아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 범주의 타당성을 검토 후 도구의 수정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도구를 활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개인적 및 업무 특성에 따른 도움추구행동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군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스티그마가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재검증이 필요하다.

5. 결론

경찰공무원 대상의 정신건강 관련 도움추구 행위 측정은 도움추구 행위의 수준을 확인 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정책의 개발 및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도움추구 행위 측정을 위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원 도구의 5개 범주, 총 17문항에서 2개 문항을 제외하여 15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였고 수정한 도구의 구성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중재 및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1] L. Alves, L. Abreo, E. Petkari, M. Pinto da Costa, "Psycho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in police officer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Vol.332, pp.283-298, Mar. 2023.

- DOI: <https://doi.org/10.1016/j.iad.2023.03.081>
- [2] A. Purba, E. Demou,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sational stressors and mental well-being within police officers: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Vol.19, No.1, p.1286, Oct.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889-019-7609-0>
- [3] J. M. Gu, S. K. Jo, "A study on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the police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cusing on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Jeonbuk provincial polic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13, No.2, pp.2203-2216, Apr.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2.154>
- [4] K. S. Lee, H. B. Moon, "The perception gap between the public and police in policing technology and policy implication",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Vol.15, No.4, pp.131-154, Dec. 2016.
- [5] Y. K. Cheung, J. C. Li, "Predictor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police work-related stres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20, No.3, p.2253, Jan. 2023.
DOI: <https://doi.org/10.3390/ijerph20032253>
- [6] K. Lorey, J. M. Fegert, "Incorporating mental health literacy and trauma-informed law enforcement: a participative survey on police officers' attitudes and knowledge concerning mental disorders, traumatization, and trauma sensitivity", *Psychological Trauma*, Vol.14, No.2, pp.218-228, Sep. 2021.
DOI: <https://doi.org/10.1037/tra0001067>
- [7] J. K. Lee, H. G. Choi, J. Y. Kim, J. H. Nam, H. T. Kang et al., "Self-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police officers", *Annals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Vol.28, No.1, p.58, Oct. 2016.
DOI: <https://doi.org/10.1186/s40557-016-0145-9>
- [8] N. J. Reavley, A. J. Milner, A. Martin, L. S. Too, A. Papas et al., "Depression literacy and help-seeking in australian polic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52, No.11, pp.1063-1074, Feb. 2018.
DOI: <https://doi.org/10.1177/0004867417753550>
- [9] Y. M. Kang, H. S. Kim, "Help-seeking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a focus on barriers and crisi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8, No.2, pp.237-252, Aug. 2016.
- [10] S. Clement, O. Schauman, T. Graham, F. Maggioni, S. Evans-Lacko et al., "What is the impact of mental health-related stigma on help-seeking?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Psychological Medicine*, Vol.45, No.1, pp.11-27, Jan. 2015.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14000129>
- [11] C. Burns, M. Buchanan,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to seek help in a police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7, No.18, p.6891, Sep. 2020.
DOI: <https://doi.org/10.3390/ijerph17186891>
- [12] L. Picco, E. Abdin, S. A. Chong, S. Pang, S. Shafie et al.,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factor structure and socio-demographic predictors", *Frontiers in Psychology*, 7, Apr. 2016.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6.00547>
- [13] J. M. Kim, S. K. Yoo, "Psychological and cultur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991-1002, Dec. 2002.
- [14] S. K. Nam,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ATSPPH-SF)",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3, pp.1007-1020, Sep. 2010.
DOI: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007>
- [15] C. Vélez-Grau, L. Mufson, W. Byansi, M. A. Lindsey,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personal factors, barriers to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s, and persistent depression disorder among latinx and black youths", *Psychiatry Research Communications*, Vol.3, No.2, p.100-123, Apr. 2023.
DOI: <https://doi.org/10.1016/j.psycom.2023.100123>
- [16] Y. M. Song, "Attitude and related factors of psychiatric patients for using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Feb. 2009.
- [17] G. W. Ryu, "Factor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 application of the PRECEDE model",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Feb. 2021.
- [18] M. Alavi, D. C. Visentin, D. K. Thapa, G. E. Hunt, R. Watson et al., Chi-square for model fit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76, No.9, pp.2209-2211, Apr. 2020.
DOI: <https://doi.org/10.1111/jan.14399>
- [19] E. H. Fischer, J. I. Turner,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5, No.1, pp.79-90, Aug. 1970.
DOI: <https://doi.org/10.1037/h0029636>
- [20] J. Kuhl, L. Jarkon-Horlick, R. F. Morrissey, "Barriers to adolescents seeking help scale (BASH)", *APA PsycTests*, Dec. 1997.
DOI: <https://doi.org/10.1037/t39995-000>
- [21] S. G. Lee, "A study on adolescents' help-seeking behavior and its obstacles",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2000, No.06, pp.135-151, Jun. 2000.
- [22] K. M. Connor, J. R.T.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18, No.2, pp.76-82, Sep. 2003.
DOI: <https://doi.org/10.1002/da.10113>
- [23] H. S. Baek, K. U. Lee, E. J. Joo, M. Y. Lee, K. S. Choi,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Vol.7, No.2, pp.109-115, Apr. 2010.
DOI: <https://doi.org/10.4306/pi.2010.7.2.109>
- [24] J. F. Hair, R. L. Tatham, R. E. Anderson, W.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Mar. 1998.
- [25] R. Maskey, J. Fei, H. O. Nguyen,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maritime research”,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Vol.34, No.2, pp.91-111, Jun. 2018.
DOI: <https://doi.org/10.1016/j.ajsl.2018.06.006>
- [26] J. Wang, X. Wa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lication using mplus”, West Sussex: Higher Education Plus, Sep. 2019.
- [27]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York, NY: The Guilford Press, Sep. 2010.
- [28] A. De Juan, C. Koos, “Survey participation effects in conflict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8, No.4, pp.623-639, Mar. 2021.
DOI: <https://doi.org/10.1177/0022343320971034>
- [29] B. Talavera-Velasco, L. Luceño-Moreno, Y. García-Albuérne, J. Martín-García, “Perception of health, resilience, and engagement in Spanish Police Offic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sicothema*, Vol.33, No.4, pp.556-563, Jul. 2021.
DOI: <https://doi.org/10.7334/psicothema2021.153>
- [30] A. Crowe, P. Averett, J. S. Glass, “Mental illness stigma,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help seeking: what are the relationships?”, *Mental Health & Prevention*, Vol.4, No.2, pp.63-68, Jun. 2016.
DOI: <https://doi.org/10.1016/j.mhp.2015.12.001>
- [31] M. A. Bujang, E. D. Omar, N. A. Baharum, “A review on sample size determination for cronbach’s alpha test: a simple guide for researchers”, *Malaysian Journal of Medical Science*, Vol.25, No.6, pp.85-99, Nov. 2018.
DOI: <https://doi.org/10.21315/mjms2018.25.6.9>
- [32] H. Y. Kim, K. J. Yon, “Cluster analysis of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 focusing on the ambivalent attitud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3, No.4, pp.1623-1649, Aug. 2021.

류 기 욱(Gi Wook Ryu)

[정회원]



- 2017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2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도구개발, 디지털 헬스